페니스가 구부러지는데요

최 형 기 · 영동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S씨(42세)는 남모르게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 몇달 전부터 목욕탕에서 우연히 음경을 만져보니 위쪽 중간 부분에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종물이 만져지는 것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니 암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것이었다.

"발기는 잘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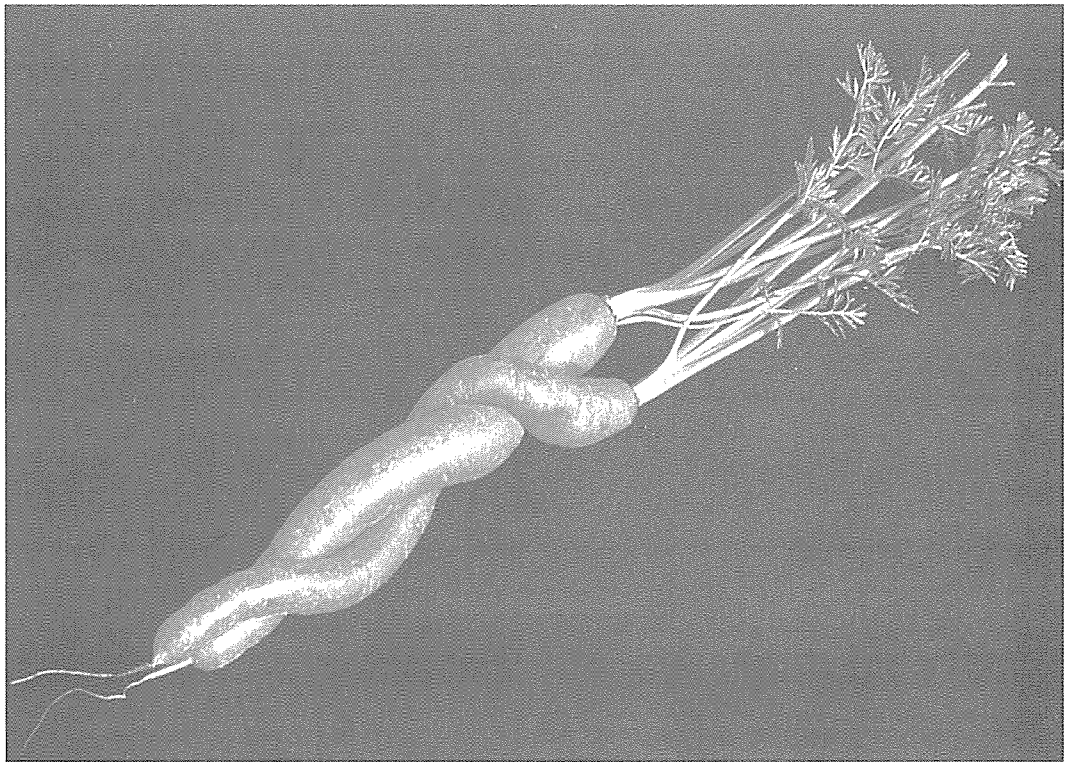
"예, 발기는 되는데 통증이 있어서 곤란하고 또 옆으로 휘는데요."

이러한 병은 불란서의 페이로니씨가 처음 발견하여, 이를 페이로니씨병이라 하는데 원인 모르게 음경이 굳어지고 꼬부라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발기될 때 페니스 부위가 아프게 되고, 점점 꼬부라지는 병이다.

당뇨 합병증으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발기력이 나빠지는 환자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또는 혈관염, 임파선염, 손상, 자가면역 등등의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아직 그 원인을 확실히 알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에 이런 원인에 더하여, 섹스 도중의 잦은 손상이 원인이라는 설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즉, 발기력이 약한 사람의 페니스가 구부러지기 시작하면 조직이 손상을 받아 이런 질환이 생긴다



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므로 섹스에도, 조심하는 "안전섹스"가 요망된다.

이런 환자들은 초기에 더 진행만 안되게 보존적 치료를 해주면 그런대로 지낼 수가 있다. 포타바나 토코페롤 혹은 스테로이드 약물을 써서 효과를 보기도 한다.

S씨의 경우는, 아직 발기력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약물로 6개월 이상 치료하였더니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그대로 치유되었다.

이렇게 경한 예가 있는 반면, 요식업을 하는 P씨(53세)는 아주 심한 증세로 찾아왔다. 완전히 꼬부라지고 뒤틀려서 발기도 안되고 도저히 성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 약 2년 전부터 진행됐는데 점점 구부러지더니 이젠 아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를 마지막으로 가진 것이 언제쯤 됩니까?"

"1년도 더 넘었습니다."

원인이 될만한 요인들을 찾아 보았으나 특별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증세가 심해서 약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수술로서 똑바로 펴지게하고 보형물을 삽입해야만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선생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것을 꼭 살려 주십시오."

"염려마십시오. 수술로 구부러진 것을 펴고 성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술로서 뒤틀린 음경을 잡아가고 또한 음경해면체의 하얀 막을 꿰매서 보형물삽입 후 똑바로 펴질 수 있게 디자인을 했다. 좌, 우 뒤틀린 부위를 잡아주고 나중에 펌프를 해보니 아주 훌륭하게, 똑바로 세워진다.

"이젠 아주 훌륭하군…"

퇴원후 1달이 지난 후 찾아 온 P씨.

얼굴이 환하다. 못쓰던 물건이 아주 훌륭히… 그것도 아주 최고로 강하게 바뀌어졌으니, 그 기쁨이야…

"다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세상에 못쓰는 물건이 어디 있겠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식당에 식사 한 번 초대하겠습니다."

건강 사회 밝은 미래, 함께 하는 의료보험

보다 편리해진 의료보험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을 240일로 확대했으며, 연차적으로 의료보험 급여일수를 30일씩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65세이상 고령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는 365일 연중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7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의원급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2,000원으로 크게 낮추었다.

CT(컴퓨터 단층촬영) 보험급여 실시, 급여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함께하는 의료보험

○ 가벼운 질병은 가까운 보건소나 의원, 약국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진료를 받은 후에는 의료보험증의 보험급여 기록란에 진료사항 기재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한다.

○ 깨끗한 위생과 규칙적인 생활로써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자.

<자료 : 서울 제17지구 의료보험조합>